창간1주년 특집

타종교인의 '내가 만난 불교'

'깨침'의 가르침 삶의 소중한 인연

오 강 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교수〉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대하게 되었을때 그 놀라움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론보다 체험을 강조하는 불교는 특히 선불교에서 '깨침'을 종교의 최고 목표로 한다는 점이 종교를 교리의 이해나 수납 정도로 여기던 종래의 나의 생각에 큰 변화를 주었다.

화엄연기 사상의 심오함에 감동

상즉상입(相卽相入)을 가르치는 화엄의 법계연기사상을 대하게 되었을때 그 사상의 심오함에도 놀랐지만, 특히 오늘같이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생겨난 환경공해나 개인주의에 의해 빚어지는 삭막한 인간관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에서 이런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사상은 나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이론이나 실천사항을 방편으로 본다고 한다. 어느 한가지 가르침을 독선적으로 주장하거나 절대화하지 않을뿐 아니라 모든 교설이나 실천사항들이 결국은 더욱 깊은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주위에 편만한 교리절대주의나 편협한 독선주의와 대조되어 더욱 놀라운 것으로 보여졌다.

불교와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이런 놀라운 발견들이 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데 대한 나의 생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불교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한번 인생의 나아갈 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윤 이 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불교와의 첫인연은 어언 3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대 종교학과에 입학한 나는 이기영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원효스님의 사상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학생종교학회' 활동하며 큰 감화

그러다 63년에는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학생종교학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 현재 동국대 교수로 재직중인 오형근선배와 지금은 출가한 관음종 총무원장인 홍파스님 등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알고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문화적 책임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혼란을 겪고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근간으로 한 불교가 그 특성을 오늘에 맞게 적용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현대인들을



'마음닦는 법'을 통해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연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정 현 경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나는 위빠사나 명상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불교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기독교학자다.

내가 불교를 정식으로 만난 것은 87년 뉴욕 유니온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교환교수로 계시던 스리랑카인 가톨릭 신부밑에서 조교로 일하면서다. 불교학을 연구하기도한 신부님은 수업시작 15분전에 반드시 위빠사나 명상수행을 지도하셨다. 신부님의 가르침은 이후 'Love and wisdom'이라는 스터디그룹으로 심화됐고 거기서 말하자면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지혜를 공부했다.

이후 불교인연이 깊어진 것은 92년 내가 하버드대 교환교수로 부임해서다. 대학 바로 옆에 숭산스님 선센타인 「관음선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1년여 동안 매일 108배를 하고 15시간씩 용맹전진을 해댔다. 천수경을 외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쳤다. 불교관련 책을 섭렵했고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아다니며 법문을 들었다.

그때 독일에서 법문하신 틱낫한스님을 친견했고 설법속에서 그동안 내가 고민해왔던 생의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냈다. 감사했다. 그후 틱스님께 수계를 받았고 학계와 교계로부터 이단이라는 비판도 들었다.

좋은 기독교인 되려 불교 깊이 공부

불교와의 인연으로 삶과 학문의 좌표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모태기독교인이고 한국인으로 진정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위해 불교를 더 깊이 배우고 있다.

김 흥 호 〈목사〉



불교라는 종교를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동양인의 정신에 뿌리내린 고유한 사상인 것 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뿌리내린 불교적인 색채를 간과할 수 있으니 말이다. 철저한 직관력, 실천력, 그것이 불교의 매력일까.

미국에서 소학을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스즈끼 다이세스의 '선'에 관한 책 몇권을 읽은 경험이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불교를 알게됐고 그 매력에 푹 빠졌었다.

禪에 매료…큰스님 초청 강좌도

그후 불교는 줄곧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는 내 생활 가까이에 있었다. 그래서 이대 강단에 서던 시절에는 청담스님, 법정스님, 광덕스님, 무진장스님, 김용정교수, 이기영박사 등을 초청해 강연을 마련한 일도 있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열의를 다해 강의하시던 그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그후 불교는 줄곧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는 내 생활 가까이에 있었다. 그래서 이대 강단에 서던 시절

나에게 있어 불교는, 불교인은 한 형제나 마찬가지다. 불교에서 말하듯 둘이 아닌 셈인 것이다. 이렇듯 멀지 않은 불교를 그동안 소홀히 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야 아쉽다.

송 창 식 〈가수〉



오래전부터 음악을 하는 관계로 이곳 저곳 여행을 가면 반드시 근처의 사찰을 찾곤 한다. 불교와의 인연도 여행하는 속에 자연스레 이뤄졌다. 사찰에서 느끼는 감흥이 때로는 내 음악작곡에 도움이 되기도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연을 맺은 사찰이 여러 곳이다.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금산사는 경내와 주위를 둘러싼 늙은 나무들이 마치 오랜 고승을 만나듯 평온함을 느끼게도 했다.

절에서 느끼는 감흥 내 음악 일부

반면에 불국사 같은 곳은 너무 관광지화 되어 있어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가끔은 안타까웠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서정주선생님께 노래하기에 적당한 시가 없냐고 물은 것이 인연이 돼 선생님의 시 '푸르른 날'을 추천받아 만든 내 노래속에는 불교적 사상이 많이 내포돼 있어 간혹 불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서정주 시인과의 만남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 삶의 중요한 인연이었던 것 같다.

요즘은 새 음반 발표를 위해 연습과 재충전으로 소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종 지방에 갈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때마다 나와 불교와의 만남은 사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사찰은 단순히 불교신자들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재충전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여 동 찬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교수〉



내가 신부로서 프랑스에서 한국에 왔을 때의 첫 느낌은 당혹스럽다는 것이었다. '불교문화'를 모르고서는 한국에서의 선교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불교를 먼저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동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나는 안다. 불교를 모르고서는 한국을 알지 못하듯 타종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내 종교에 대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선교 할 수 없다는 것을. 불교라는 것을 계기로 큰 것을 깨달은 셈이다.

그래서 내게 있어

한국 알려면 불교공부는 필수

법경스님, 효진스님 같은 분들이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재미있는 일도 참 많았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신부로서 불교학과에 입학했을때 불교학과 동기들이나 선배들로부터 '첩자'라는 오해를 받은 일이 있었다. 타종교인이 불교학과에 들어 왔으니 그럴만도 했다.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불교는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종교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 운허스님, 청담스님, 경산스님, 무진장스님….

하나님의 말씀과 큰스님들로 부터 전해들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강단에 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있어 삶의 경책이 되고 등불이 된다.

김 도 향 〈가수, 명상음악 작곡가〉



내가 만난 불교는 잠자는 이들의 내면의 정신을 깨워주는 각성제같은 것이었다.

나의 음악세계, 나의 삶. 한 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행동거지를 차분하고 안정되게 한다.

내면의 세계 일깨워 주는 각성제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할까. 불교인이 아닌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불교를 접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매력들 때문인 것 같다. 결코 질 하지 않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가르침들.

하지만 그 가르침이 때로는 아집에 쌓인 종교인을 낳기도 한다. 멀지않은 과거에 있었던 조계사 사태며, 불교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은 그 사실을 잘 대변해 준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런 커다란 착오가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있는 그대로 헛된 사견의 개입없이 따르고 지킨다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 그것이 종교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고로, 한 순간 한 순간을 차분하게 호흡하면서 내 속에 깊이 잠재돼 있는 그 무엇을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만난 불교다.

봉 비구·비구니계 수계식 행

한국 불교계 원로이시고 덕이 높으신 덕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는 불이성 법륜사에서는 금번 11월 5~7일 2박 3일간 비구·비구니계 수계식을 봉행하오니 비구·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스님들은 동참하시어 이 계를 수지하옵기 원하나이다.

일 시	: 1995년 11월 5일 ~ 7일(음력 9월 13일 ~ 15일)
장 소	: 불이성 법륜사 큰법당
대 상	: 삭발 염의한 스님
지 참 물	: 가사·장삼
동 참 비	: 50,000원
접수기간	: 1995년 10월 31일까지
문 의	: ☎ 732-3920, 2710

불이성 법륜사 주지 석혜일 합장

영가 천도 안내문

우리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를 받드는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직접 부모님을 위해 도솔천궁에까지 왕래하시면서 마야부인을 제도시킨 예를 지장경에서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은 윤달이 든 해이고 해서 우리 법륜사에서도 7일간 영가천도를 올릴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을 잘 천도시키는 동시에 여러 신도 가정에 이러한 기도로 인하여 무병과 지혜를 얻어 국가가 안녕하고 집안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입재일 : 1995년 11월 4일 (음력 9월 12일) 회향일 : 1995년 11월 10일 (음력 9월 18일) 7일간 오전 10시
장 소	: 불이성 법륜사 큰법당
동 참 비	: 50,000원
전 화	: ☎ 732-3920, 2710

불이성 법륜사 주지 석혜일 합장